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아모스**

여호와와의 날

(아모스 5 : 6 ~ 27)

원로목사 **이종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욥8:5-6).

하나님은 이와 같은 확실한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이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와의 날에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1. 이스라엘의 무서운 죄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바르게 옳은 말하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옳은 말을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고 삽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11절).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학대하는 죄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이 억울해 합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힘없고 없는 사람에게는 무섭게 적용되고, 힘 있는 자는 비켜간다는 이것은 분명 잘못된 사회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흑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15절).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것은 재판하는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흑시 용서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재판을 했습니다. 사법이 흔들리면 그 나라는 끝장이 나게 됩니다.

2.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사람

“정의를 쓴 축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7절).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라”(8절).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이 아닌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정의가 없고 공의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거룩한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해도 편법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닙니다. 공의는 신앙의 생명입니다. 교회까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불의에 빠진다면 이 사회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3. 여호와와의 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4:16-17).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와의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두 여인이 땀물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예수님께 데려감을 받고, 또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와의 날을 진노의 날로 맞이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이요 빛이 아니라”(18절).

여호와와의 날은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날은 어두움의 날이고 진노의 날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 것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으니 고독한 날입니다. 이 날에는 홀로 지옥에 던짐을 받는 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시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둠의 권세에 빠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피할 곳이 없습니다. 환난의 연속입니다. 여호와와의 날은 소망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7 하계 국내전도



서울교회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김준기 목사 (고성 대진중앙교회)

저는 서울교회의 농촌교회 선교후원을 받고 있는 대진중앙교회 김준기 목사입니다. 벌써 3년째 우리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워도 선교는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무더위와 폭염으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는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시는 서울교회와 성도님들을 보며 많은 도전도 받았습니 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 처럼 복음이 뿌려져야 했던 마을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수고하여 주신 의료선교팀, 이·미용팀, 마을전도팀, 주방봉사팀, 성경학교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여 주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노고위에 주님은 7명의 영혼을 복음 전하고 가신 다음 주일 예배 때 우리교회에 보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무더운 여름철 쉽 이 필요하지만 바

쁘신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으며 동해안 끝자락 까지 오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역에서 교회가 지역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은 시골교회에서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재정도 없고, 일꾼도 없습니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일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회의 선교지원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교회에 대해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들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사랑은 대진중앙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자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마을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시골에서의 목회는 노년 목회가 되어야 하고, 노년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교회의 선교 봉사를 통하여 많은 새신자분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귀농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이곳은 어촌이라 어획량의 감소로 오히려 점점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의료선교, 마을전도, 이·미용, 성경학교,

초청 잔치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지역의 필요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김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농촌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더 다양한 계획들을 세워주시고,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들으시려고 하는 서울교회 성도님을 볼 때 마다 우리나라의 농촌교회를 세워 나아가겠다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올해에는 서울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선교 봉사에 더 많은 마을 주민이 우리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져 보았습니다. 작지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조금씩 세워져가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교회를 통해 위로와 큰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소원도 가져 보았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 이산의 아픔이 있는 곳, 영과육이 타락하여 사단에 매여 있는 곳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곳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아직 남아 있기에 서울교회를 통하여 그 사랑을 올해도 우리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서울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큰 열매로 나타나기를



나기태 권사 (이·미용팀장)

어려운 교회 형편 가운데서도 국내전도를 계획하고 이루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분쟁으로 인하여 이·미용팀이 분산되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제가 이·미용팀의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영업장의 휴가를 전도 날짜와 맞추고, 처음가는 국내 봉사팀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기도로 무장했습니다.

이번 미용팀에는 연세 높으신 전용순 권사님, 건강이 좋지 못하신 광숙 권사님, 어떻게 보면 여건이 좋지 못하게 보여질 수도 있었겠지만, 출발 전 염려가 무색할 정도로 차분하고 일사불란하게 봉사에 임했습니다. 도착 직후 점심을 채 먹기도 전에 밀려든 동네 어르신들을 보며 부랴부랴 밥수저를 놓고 교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라고 생각하니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미용팀에 보조로 수고 해주신 이영희 권사님, 서수녀 집사님, 염색을 담당해주신 광대수 권사님은 한 마디 하면 열 마디를 알아듣는 일등 미용보조였습니다. 그리고 툴툴히 도와준 젊은 청년들, 머리를 감겨주신 우리 집사님들은 마치 예행 연습을 하고 온 사람들처럼 너무나 손발이 잘 맞아 무더운 찜통더위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137명의 많은 어르신들을 이·미용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고성은 통비가 오지 않아 땅이 갈라지고 지열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중간 중간 만남에서 나오는 미숫가루, 냉커피 등으로 무더위를 식하며 서로에 대한 섬김이 사랑의 회복제로 작용했습니다.

파마 하러 오신 할머니들이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 같은 생각에 너무 소중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이라 생각하니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행여 귀에 파마 약이 들어갈까, 염색 약이 눈에 들어갈까 조심 또 조심하며 파마를 하고 머리를 깎는 내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의료팀, 만남팀, 전도팀, 지원팀,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섬김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3박4일이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마지막 날 만찬에 많은 마을 주민들로 교회안이 가득 차는 것을 보고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한대석 집사님의 예배인도로 청년들이 준비한 교회학교 학생들의 율동과, 손뼉을 치며 찬양을 부르는 주민들을 보며 내 사랑 서울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생각에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로 맺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최용준 집사
(의료선교부)

서울교회의 의료 선교부에서는 농어촌 선교의 일환으로 지난 3년간 이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교회 1층에 도착하니 벌써 온 낮익은 집사님들과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각종 장비를 버스에 싣고 있었습니다. 서명철목사님의 간단한 격려의 말씀과 축복기도와 함께 참여한 분들의 자기소개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역에는 한의사인 저를 포함하여 각과 전문의료인 14명 약사 2명 의대생 2명 일반성도 8명 등 총 26명이 동참하였습니다. 그중 몇몇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화기애애하고 밝은 표정들이었습니다.

7시를 조금 넘어 버스에 올라 출발하여 하나님께

서 우리 민족에 선물한 아름다운 산하를 구경하는 동안 버스는 구불구불한 강원도 산길을 넘어 어느새 대진 중앙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회는 고성군 대진항 외곽의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작고 아담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2층 예배당에서 그 교회 교인들과 우리 서울교회의 의료진, 성도들로 가득 메운 채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김춘기 담임목사님의 중학생 외동딸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5명의 성가대원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은 그 어느 찬양대보다도 더 은혜로웠습니다.

간단한 점심식사 후 2층 예배당에 각과 진료실을 설치한 후 오후 1시부터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한방과는 대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통증 질환을 치료하였습니다. 이날 날씨는 몹시 무더웠으나 화창하였고 예배당 많은 환자로 예배당이 북적거렸습니다.

아래층 교회 식당에서는 수명의 의료진이 영양 수액을 주사하였는데 에어컨 시설이 안되어서 비오듯 흐르는 땀으로 인해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진료해야만 했습니다.

진료가 모두 끝난 후 결산을 해 보니 환자 62명, 각 과별 누적환자는 134명, 초음파 검사 72명, 수액 85명, 연인원 290명이었습니다. 진료가 모두 마친 후 고성 대진중앙교회 담임목사님 부부를 위로와 격려하는 작은 모임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강원도 시골교회를 지난 8년간 지극정성으로 섬겨오신 김춘기 목사님의 진솔한 얼굴과 구릿빛 주름진 어르신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오늘 수고하신 의료진과 성도들의 얼굴들이 어른거렸습니다.

주여 이들을 축복하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김순진 집사
(축호전도팀장)

이번 전도대의 축호전도팀은 팀장인 저를 포함하여 4명이었습니다. 주중에 일을 하시는 김은순 권사님께서 휴가를 내셨고 전도 열정이 뜨거운 이성희 집사님과 제1권사회의 김정제 권사님이 합류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나갈 때마다 남자집사님들과 청년들이 동행하여 주었습니다.

대진중앙교회는 올해로 3년째 가는데 계속 그곳에 올해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영혼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려나 하는 마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게 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첫째 날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바로 전도에 나섰습니다. 마을을 크게 4등분하여 전도팀 1명에 청년 2명, 남자 집사님 한 분으로 하여 4개조가 출발하였습니다.

마침 마을을 돌다 담배 가게 앞에서 재작년 잔치에 모셔왔던 김정녀(76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통통 부은 두 다리에 파스를 붙이고 계셨습니다. 교회에 가보신적 있으시냐고 하니 15~16세 때 친구들과

함께 찬양이 좋아서 2, 3년 이웃 마을 천진교회에 열심히 다니셨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찬양이 있으시냐고 하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셔서 함께 손뼉을 치며 불렀습니다. 60여 년 전 일인데도 총총히 기억하고 계신 것이 신기했습니다. 찬양을 마친 후 어머니님과 손을 잡고 다시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이명준, 박소연 청년과 나가서 등교하는 고2 남학생 허준재와 정승철을 만났습니다. 두 학생은 주일학교에 다녔으나 쉬고 있다고 해서 다시 예배에 나오라고 권면하고 휴대폰 번호를 알려줘서 문자를 보냈더니 기뻐하게도 못 온다고 답장을 주어 작은 선물이나마 챙겨 목사님께 맡겨 놓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찾아가라고 문자를 했습니다.

오후엔 대진중앙교회 김춘기 목사님과 김혜연 집사님, 김신영 청년과 교회에서 먼 마차진 마을에서 가서 김옥봉(90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귀가 어두우셔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 마음을 활짝 열고 받으셨고, 바로 목사님께서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교회 계단 바로 아래에 사는 김대용(60세,남)

씨와 박성남(77세,남)씨는 작년 잔치에 초대할 때에 이웃분과 셋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오시겠다더니 정말 오셨었는데 올해는 댁에 찾아가니 맑은 정신에 단정한 모습으로 수요예배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셨습니다.

매일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면 우리 전도팀은 그 날 전도한 분들과 다음날 만날 영혼들을 위해 마음을 합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느 농어촌 마을도 그렇겠지만 고성 마을에는 유난히 독거 가정, 결손 가정 등이 많아 서울로 돌아오면서도 내내 외로운 노인분들과 밝아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를 뿌리고 왔으니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고 그 분들이 주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남은 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국내전도는 우리가 약한 중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셔서 더욱 은혜가 컸습니다. 주일 의료팀부터 이·미용팀, 전도팀, 만나팀, 지원팀까지 형편대로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운동

- 후원 신청 오늘 마감 -

매년마다 성도들에게 후원접수를 받았던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20 운동,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 후원을 2017년에는 교회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박노철 목사 측이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불법으로 바꾸면서 시작된 은행계좌 인출불능 사태가 지속되면서 서울교회가 파송한 12개국 71명의 선교사들에 대한 후원이 6개월째 중단된 바, 선교 현장에서는 피눈물로 기도하며 후원의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서울교회 당회는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운동』을 재개하여 오늘 후원 신청을 마감한다.

1구좌는 매월 일십만원이고, 형편에 따라 1/2구좌 (월 5만원)도 가능하며, 어린이/청소년은 1구좌를 월 5천원으로 하여 교회학교 학생들도 선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지난 주일까지 많은 성도들이 후원에 참여하였으며 각 선교회, 전도회 및 부서에서도 후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

지난 주 후원신청자는 다음과 같다.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명단 및 구좌

이종윤 홍순복 (1) 김광민 박민숙 (1) 김성주 한주희 (1) 김영표 권소희 (1) 김재용 김재령 (4) 김형상 최금숙 (1) 노문환 (1) 민의량 (0.5) 박미현 이승열 (1) 박정자 (1) 박창호 송민정 (1) 서은석 김미성 (1) 성선규 김명심 (1) 송인덕 이흥숙 (1) 오지열 (0.5) 우승희 박형빈 (1) 우정균 (청소년1) 우정서 (청소년1) 우정연 (청소년1) 이상섭 (1) 이순형 (1) 이준호3 이은희7 (2) 임상현 (1) 장해라 (청소년1) 장해운 (청소년1) 전광영 김인숙 (1) 정철웅 (1) 최광성 (1) 최유현 (1) 하인선 남태순 (1) 홍석현 (0.5) 황병석 (0.5) 서명철 주원순 (1) 감우균 김연화1 (1) 박동식 (1) 흥해란 (1) 김희열 유슬기 (1) 서준권 유정민 (1) 김승록 전미경 (1) 장석남 강남희 (1) 김서연 김연우 (청소년1) 하혜심 (1) 김재윤 김재경 (2) 김태수 김은희3 (1) 오만옥 박미영3 (1) 정진균 (1) 원유현 전성희 (1) 임광호 김정미 (1)

조상현 전광환 (1) 홍창훈 박래경(홍자영) (1) 김정제 (1) 박찬희 (0.5) 나기태 (0.5) 정근희 (0.5) 권진순 (0.5) 주의현 (0.5) 신모란 (0.5) 유성택 (0.5) 장윤기 노애리 (0.5) 김유신 (0.5) 김알영 (0.5) 신아령 (0.5) 최효선 (0.5) 최금자 (0.5) 채교천 (0.5) 조준엽 (0.5) 조재민 조재석 (0.5) 한상준 (0.5) 한 대석 (0.5) 지성철 (0.5) 서예준 (청소년1) 서예성 (청소년1) 안인호 이명신 (1) 유남식 강은경 (1) 최종금 (0.5) 김동봉 임미경 (2) 제오복 (1) 윤성남 이영희 (1) 김세웅 김운 (1) 박상훈 (1) 이영재 (0.5) 김애리 (0.5) 정성우 (0.5) 임종현 (1) 이주희 (청소년1) 채승호 (1) 류츠키 김복희 (1) 진돈 (1) 주하인 (1) 류장렬 (0.5) 차도훈 남태영 (1) 하태현 안선희 (1) 홍일성 (1) 최원자 (1) 임하울 (청소년1) 임하람 (청소년1) 임하린 (청소년1) 오광환 이안순 (1) 이종균 (1) (다음 주 계속)



적발시 예배 및 설교 방해죄(형법 제 182조), 퇴거명령죄(형법 제 319조 2항), 업무방해죄(형법 제 314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례 신청 안내

오늘 마감

세례식: 8월 13일 (주일) 찬양예배 시

- 세례·학습 교육: 7월30일 (주일) 오후 2시
 - 세례 문답: 8월 6일 (주일) 오후 2시
 - 세례식: 8월 13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 시
- 세례, 유아세례, 개종, 입교, 학습을 받기 원하는 성도는 사무국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동 정

■ 금주 식사제공 : 노송성 은퇴장로 이영옥 권사 가정 (노송성 은퇴장로 생신 감사)

2017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중에 진행돼

유아·유치부: 오늘, 706호 702호 / 청년2부: 8월 14일(월) ~ 15일(화), 아가페타운

부 서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유아부	7월 30일(주) 2~4시	706호	예수님 따라 홀리! 사랑하며 Holy!	강남희 전도사
유치부		702호		
청년2부	8월14일(월)~15일(화)	아가페 타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서준권 목사

2017 성경 암송대회

베드로전서 1~5장

예선: 10월 1일(주일) 교회학교 별 / 본선: 10월 13일(금) 오후 7시

2017년도 성경암송 본문은 베드로전서 1-5장이다. 예선은 10월 1일(주일)에, 본선은 10월 13일(금) 오후 7시에 시행한다. 교육1국에 한하여 미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장, 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3장을 암송한다.

암송본문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하고, 영어번역본

은 NIV(1984년 개정판)성경으로 한다.

한편 5월 31일부터 성경암송대회 전까지 수요예배 설교를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부목사들이 설교를 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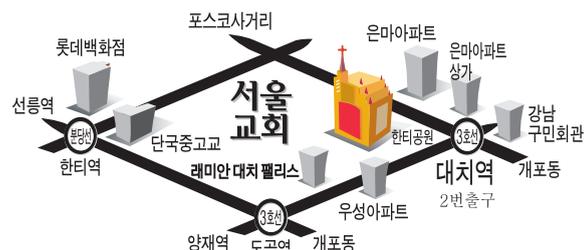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7월 30일(주일)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유아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와 8월 14(월)-15(화) 아가페타운에서 진행되는 청년2부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2.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운동에 모두 동참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기도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3.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